

위기로 인한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 연구

조윤호

(그리심교회 담임목사, 조직신학)

〈한글초록〉

1세기 사도들의 중심역할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면 2세기의 교부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중심으로 하게 된다. 당시 교부들이 사역하던 2세기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로마와 이단과 갈등의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은 당면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 길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갈등의 극복에 대해 그는 크게 두 가지로 그 길을 제시한다. 이단으로 인한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교리적 입장을 제시한다. 그리고 고난에 따른 갈등의 문제는 신앙으로 환경을 이겨나가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도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그나티우스의 뛰어난 멘토링을 만나게 된다.

이그나티우스가 기록한 일곱 서신의 중심은 그리스도론이다. 이처럼 그의 멘토링 역시 그리스도론이 중심을 이룬다. 그리스도론은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그의 신앙과 신학이었으며,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의 멘토링이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론과 생각보다 사실에 따른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십자가의 길은 위기에 빠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멘토링이었다.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당면한 문제로 발생한 고난과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다.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세속화와 코로나로 신앙이 위협당하고 있다. 시대에 따른 차이는 있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세속화와 코로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주제어 : 갈등, 그리스도, 멘토링, 십자가, 신앙, 이그나티우스

I. 들어가는 글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 35-108)는 순교자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그가 순교 당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던 도중에 기록한 일곱 편 의 서신은 속사도 교부였던 그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고증자료가 되고 있다.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에비온주의(Ebionism)와 영지주의(Gnosticism) 이단의 문제,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오는 핍박이라는 위기 앞에 매우 심각한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된다.

순교의 길을 가던 그가 서머나에서 「에베소 인들에게」,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트랄레스 인들에게」, 「로마 인들에게」 네 편 의 서신을 기록한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빌라텔피아 인들에게」, 「서머나 인들에게」, 「폴리잡에게」 보내는 세 편 의 서신을 기록한다.¹ 순교 현장을

¹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향하던 그가 일곱 편¹의 서신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교회를 향한 로마 정부의 핍박으로 인한 갈등의 구조 (2)이단으로 인한 교리적 갈등의 구조 (3)참된 그리스도인의 길과 관련된 갈등의 구조였다.² 이런 상황 속에 기록된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이 가지는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떠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리고 사도들을 표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은 자신에 관한 소식 또는 여러 상황에 대해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한 서신이 아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서신은 당시 수면 위에 떠 올랐던 세 가지의 갈등 구조를 해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책임을 다하는 속사도 교부로서의 ‘지도(指導) 서신’이었으며, 리더십을 겸비한 멘토링의 성격을 가진 서신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 나타나는 멘토링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이 제1원인으로 작용한다. 성경은 멘토링에 대한 내용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의 세계에서 펼쳐졌던,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멘토링,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아 왕을 비롯한 선지자들의 멘토링 등 다양하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의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교훈할 때 이렇게 권면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근거로 삼았던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자신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주었던 제1원인에 대한 근거가 되기도 했다.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했던 것을 바탕으로 기록한 그의 서신은 교회와 성도들을 신앙의 집합체로 묶어 멘토링하고 있다.

Sons, 1922), 660-664; Henry Bettenson,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3-4.

² 조윤호,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68 (2020): 220-221.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은 중심에 그리스도론이 있으며, 이것이 교회론과 신앙론으로 내용들이 전개되는 특징을 가진다. 그리고 그의 서신은 위기 앞에 갈등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견인하며 답을 주는 멘토링으로 전개된다. 일률적일 뿐만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그의 멘토링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위기의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멘토링에 따른 방향 제시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는 일에 밑거름이 될 것이 사료된다. 따라서 2세기 초대교회가 이단과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위기에 따른 갈등에 대해 이그나티우스는 이것을 어떻게 멘토링하였는지 세 가지 관점에서 이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가치관’을 일깨우는 멘토링이며, 두 번째는 사고를 전환시키는 모본의 멘토링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자적 멘토링이다.

위기에 따른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당면한 현실과 과제 앞에 중요한 조언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위기의 코로나 앞에 놓인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는 시간이 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이런 절박한 위기의 현실 앞에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에 대한 연구는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매우 유익함을 준다. 위기에 따른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그의 멘토링은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위기 앞에서 어떻게 세워나가야 하는지 일정 부분 도움 줄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II. 참된 잠재적 가치관을 일깨우는 멘토링

1.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을 일깨우는 멘토링

이그나티우스의 뛰어난 멘토링은 상대의 잠재적 가치관을 일깨워주면서 그 가치관 아래 담대하고, 당당하게 서도록 이끌어가는데 있다.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이런 모습이 역력히 드러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이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핍박 속에서 고통과 공포, 두려움이라는 갈등의 구조 속에 빠진다. 그러나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무너짐을 당하고 있는 서머나 인들에게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가치관을 발견한다. “그리스도의 피와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³ 그는 서머나 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스스로 느끼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신들의 참된 가치관을 발견하도록 한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열매를 가진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한다. 신앙의 참된 가치관은 심리 또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⁴

리처드 백스터(Richard Baxter, 1615-1691)는 『기독교 생활 지침』에서 ‘새 신자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법’을 다룬다. 여기서 그는 “진리와 경건의 탁월함을 취하지 않고 새로움이나 명성을 택하게 되면 새로움과 명성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의 신앙 또한 사라지게 될 것”을 조언한다.⁵ 신앙을 통해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발견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죽음을 정복한

³ Ignatius, “To the Smyrnae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1:1, 112-113.

⁴ Herman Bavinck, *Reformed Dogmatics 1*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37-38.

⁵ Richard Baxter, *A Christian Directory* 1, 박홍규 역, 『기독교 생활 지침 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133.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만약 가짜라면 자신이 쇠사슬에 매여 로마로 압송당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단편적으로 ‘가짜의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걸어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걸음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에 속한 자로서의 걸음이니 죽음 앞에 두려움이 자신의 영혼을 갈등적 구조 속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증거하며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을 일깨우고 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이 가짜라면 사슬에 묶인 내 존재도 가짜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찌하여 죽음과 불과 칼과 들짐승에게 나를 온전히 내주었겠습니까? ... 야수들과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Smy, 4:2)⁶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을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을 자신의 순교에 비추어보고 있는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단순한 간증 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독자로 하여금 그 가치관 속에 들어오도록 이끌어가는 효력을 발한다. 이런 그의 멘토링은 서신의 곳곳에 등장한다. 에베소 인들을 향한 서신에서도 밝혔듯이 자신이 로마의 야수들 앞에 놓여질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 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⁷이 전제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은 그 사람의 삶과 자세를 변화시킨다.⁸ 이런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만들어진다.⁹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⁶ Ignatius, “To the Smyrnaeans,” 4:2, 113.

⁷ Ignatius, “To the Ephesians,” 1:1-2, 88.

⁸ Kevin J. Vanhoozer, *Heavens and Doers*, 박세혁 역, 『들음과 행함』 (서울: 복 있는 사람, 2020), 276-277.

⁹ Ignatius, “To the Ephesians,” 1:1, 88.

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신’(참고, 요 19:30)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그 가치가 더 높아진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증거해 내고 있는 십자가를 가리켜 ‘기증기’에 비유한다.¹⁰

그의 멘토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 할 이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¹¹는 데 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을 높이고, 되찾게 만든다.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을 지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며 고난에 사로잡혀 갈등 가운데 놓인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을 알게 한다.¹² 이런 그의 멘토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신처럼 성도들(이 서신을 읽는 모든 독자들) 또한 그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2. 동역의 참된 가치관을 일깨우는 멘토링

동역의 참된 가치관은 하나로 묶어내는데 있다. 스테판 차녹(Stephen Charnock, 1628-1680)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단순성’과 연결한다. 삼위일체가 이루는 속성에 따른 일치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심이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그 뜻이 펼쳐짐을 강조한다.¹³ ‘하나의 교회’와 성도가 동역을 이룬다는 것은 사람의 자발적인 발상 또는 의지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본질을 묶어내는 것으로부터 그 출발이 이뤄져야 한다.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서로를 ‘하나로 묶어내는 것’에 있다. 여기서 두드러지는

¹⁰ Ignatius, “To the Ephesians,” 9:1, 90.

¹¹ Ignatius, “To the Magnesians,” 4:1, 95.

¹² Ignatius, “To the Magnesians,” 4:1-5.1, 95.

¹³ Stephen Charnock, *Discourses upon the Existence and Attributes of God* (London: Thomas Tegg, 1840), 210, 415.

것은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자신을 부족한 자로, 형제들이 함께 동역을 이뤄줘야 할 존재로, 심지어 자신은 서신을 받아보는 성도들의 지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며 동역의 필요성을 이끌어낸다.

나는 여러분에게 내가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명령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위하여 갇힌 자이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막 제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동료 학생들이라 부릅니다. 나는 믿음, 격려, 감내, 인내에 있어서 여러분의 지도(코칭)가 필요했습니다.(Ep, 3:2)¹⁴

또 하나 이그나티우스 멘토링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면서 동역을 이끌어낸다. 에베소 인들을 향한 그의 서신의 말미에 보면 서신을 받아보는 독자들과 자신이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며, 자신과 같은 가치관으로 하나를 묶어낸다. “나는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머나로 보내신 자들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칩니다. ...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처럼 저를 기억하십시오.”¹⁵ 동역은 한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를 이루는 사역을 만들어낸다. 그는 교회와 성도를 일치와 연합으로 이끌어낼 때 지배적 개념의 군림하는 방식 또는 상부 하달 방식의 명령체계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앙의 형틀 안에서 동역을 이루며,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서로 일치를 이루게 한다.

특히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에 나타나는 인사말에는 그의 특유한 멘토링이 숨겨져 있다. ‘데오포로스(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자)’라는 단어다. 이 단어는 서신을 받는 수신자보다 자신이 영적으로 상위에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교회사학자인 시릴 리차드슨(Cyrl. C.

¹⁴ Ignatius, “To the Ephesians,” 3:1, 88.

¹⁵ Ignatius, “To the Ephesians,” 21:1-2, 93.

Richardson)의 지적에 의하면 “이 단어는 명사적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다. 예언적 성격을 나타내는 측면에서 자신을 칭하는 별명 또는 별칭”¹⁶이었다. 명사보다 예언적 성격을 가진 이 단어는 자신의 사역을 변증하면서 두 가지 측면을 발견하게 한다. 첫 번째는 로마 정부로부터 붙어닥치는 고난과 이단의 거짓된 교리 앞에 당면하고 있는 갈등적 상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중심에 세우는 동역을 이끌어내고 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의 가치관에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도록 한다.¹⁷ 따라서 ‘테오포로스’는 자신의 드러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으로 동역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이 가치가 있고,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점들이 그의 멘토링의 특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3. 고난의 참된 가치관을 일깨우는 멘토링

토머스 브룩스(Thomas Brooks, 1608-1680)에 의하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환난을 명하셨다.¹⁸ 그러나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롬 5:4) 한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든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통의 원인을 피해를 제공하는 원리(측)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의미하고 있는 바에서 근본을 찾도록 한다. 로마로 압송당하는 과정 또한 고통 가운데 놓여진다. 그러나 그의 일곱 서신은 고통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을 찾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 「에베소 인들에

¹⁶ Richardson, Ed., *Early Christian Fathers*, 76-77.

¹⁷ 조윤호,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221-224.

¹⁸ Thomas Brooks, *The Mute Christian under the Smartering Rod*, in *The Works of Thomas Brooks*, Ed. Alexander B. Grosart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2001), 1:287.

계)와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인사말에서 신앙에 따른 고난은 무너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된 행복의 가치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동시에 그 가치관 속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한다.

여러분의 일치와 택하심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참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여겨질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Ep, Text*)¹⁹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분의 진정한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인해 온전히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날 것(부활)이기 때문입니다.(*Tral, Text*)²⁰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에베소의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같기를 기도”하도록 한다.²¹ 그리고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에게 ‘연합을 소중히 여길 것’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으신 것’을 돌아보며 그 가치관에 세워지도록 한다. 그는 파벌을 지어 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며, 이런 자신의 마음의 원본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한다.²²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의 근원에 대해 묻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제시할 것이다.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 1854-1921)는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 가치관을 논하면서 “모든 속성들과 작용에

¹⁹ Ignatius, “To the Ephesians,” 87-88.

²⁰ Ignatius, “To the Trallians,”

²¹ Ignatius, “To the Ephesians,” 1:3, 88.

²²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7:2; 8:2, 110.

관한 원리는 뿌리를 둔 본성에서 이루어진다”²³고 피력한 바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순교라는 극단적인 순간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 두려움과 공포를 말하기보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먼저 기억하며,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앞에 서도록 독려하는 멘토링을 펼친다.

다만 내가 육신의 강건함을 얻어 [순교에 대해] 말할 뿐만 아니라 진정 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Rom*, 3:2)²⁴ ... 그러므로 내가 죽었을 때, 나는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더 이상 내 육체를 보지 못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단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 기도해 주십시오.(*Rom*, 4:2)²⁵ ... 불이여, 십자가여, 야수들과 싸우는 것이여, 뼈를 찢는 것이여, 사지를 자르는 것이여, 온몸을 으스러뜨리는 것이여, 마귀의 잔혹한 고문이여,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게만 하라!(*Rom*, 5:3)²⁶

고난은 자신을 무너뜨리는 괴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 있는 희망을 알리는 메시지와도 같은 것이다. 「폴리갑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거친 풍량이 몰아칠 때 항구가 필요하듯이 고난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나가길 갈망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당히는 고난 앞에 소망을 잃지 말고 지금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대를 바라보도록 한다.²⁷ 그는 폴리갑(Polycarp,

²³ Herman Bavinck, *Christelijke wereldbeschouwing*, 김경필 역, 『기독교 세계관』 (경기도: 다함 출판사, 2020), 145-160.

²⁴ Ignatius, “To the Romans,” 3:2, 104.

²⁵ Ignatius, “To the Romans,” 4:2, 104.

²⁶ Ignatius, “To the Romans,” 5:3, 105.

²⁷ Ignatius, “To Polycarp,” 2:3-3:2, 118-119.

69-155)이 감독으로 있는 서머나 교인들에 대해서도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여 굴복당할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갑옷으로 삼고 이겨나가도록 한다.²⁸ 절대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고난 속에서 고난이 가져오는 참된 가치관을 영적으로 직시하도록 멘토링 한다.

Ⅲ. 사고(Thinking)와 열렬함(Willing)을 이끌어내는 모본의 멘토링

1. 사도의 표상(表象) 제시를 통해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 가운데 중요한 점은 본받을 대상을 사도적 모습 속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이끌어갈 야 할 감독과 장로들에게 두 가지 점을 명심시킨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재”하는 모습이 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사도적 공의회를 대신”하도록 한다.²⁹ 특히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사도적 표상 위에 세워진 감독과 지도자를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분열시키는 그 어떤 것들도 용납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³⁰

주님과 사도들의 명령은 육체와 영혼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표상으로써 능동적 사고와 바른 섬김의 본을 이끌어낸다. 사도들이 예수님과 성부와 성령께 경의를 표했던 것처럼 감독과 서로들에게도 경의를 표하도록 지도한다.³¹ 그는 건강한 교회의 감독과 장로를 거짓 교사들과 비교되는 사도적 표상으로 비취보도록 한다.³² 흔히 배운

²⁸ Ignatius, “To Polycarp,” 6:1-2, 119-120.

²⁹ Ignatius, “To the Magnesians,” 6:1, 95.

³⁰ Ignatius, “To the Magnesians,” 6:2-7:1, 95-96.

³¹ Ignatius, “To the Magnesians,” 13:1-2, 97.

³² Ignatius, “To the Trallians,” 3:1-4:2, 99.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이 교회를 향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리켜 ‘사도적 방식’이라고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밝힌다.³³ J. N. D. 켈리(J. N. D. Kelly, 1909-1997)에 따르면 그는 그리스도와 바울을 이상으로 삼는 속사도 교부였다.³⁴ 아달베르 함만(Adalbert Gautier Hamman, 1910-2000)은 이그나티우스의 신앙을 가리켜 “사도들에게 전해 받은 것을 고백하는 신앙”³⁵이라고 증거한다.

순교를 앞두고 로마를 향하던 자신의 모습 또한 두려움이라는 갈등에서 자유할 수 없었다. 이런 사실은 “순교의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위안이 되었던 것이 ‘복음서’와 ‘사도서’였습니다”³⁶라고 밝힌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5장이 증거하고 있다. 자신 또한 ‘사도의 표상’ 가운데 세워진 한 사람이었다. ‘사도의 표상’은 성도들을 자신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발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간다. 사도적 발상에 따른 긍정적 사고를 이끌어내는 멘토링이었다. 사도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긍정적 사고의 발상은 자신이 걸어가는 순교의 길을 다른 사람 또한 열렬히 갈망하게 만든다.

이그나티우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던 서머나의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당하며 빌라델피아 교인 12명과 함께 ‘사도의 수(數)’에 맞춰 화형당하는 순교의 길을 걷는다.³⁷ 그

³³ Ignatius, “To the Trallians,” 98.

³⁴ J. N. D.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33.

³⁵ Adalbert Hamman,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London: SCM Press LTD, 1993), 9.

³⁶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5:1, 109.

³⁷ Cyril C. Richardson, Ed., “The Martyrdom of Saint Polycarp, Bishop of Smyrna, as Told in the Letter of the Church of Smyrna to the Church of Philomelium,” in *Early Christian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15:1-19:2, 154-156;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665.

또한 이그나티우스처럼 사도의 길을 따르기를 기뻐했으며, 이런 자신을 사도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한다.³⁸ 이와 같이 ‘사도의 표상’을 제시하는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사도적 발상을 통해 그리스도를 ‘사고(Thinking)’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열렬히 갈망하는(Willing) 자리’에 이르게 한다.

‘사도의 표상’ 가운데 세워진 그는 굴욕적인 자세로 순교를 피하는 자리에 서는 것보다 순교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열렬히 택한다. 로마인들을 향한 서신에서 이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다. “광활한 땅과 이 세상의 왕국이 내게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땅끝을 다스리는 것보다 ‘나는 차라리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습니다.”³⁹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갈망이 로마 성도들의 호응을 이끌어낸다. 이상규 교수는 자신의 저서 『초기 기독교와 로마 사회』에서 이그나티우스와 관련된 순교사를 다루면서 사람들은 순교 현장에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목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닮아야 할 그리스도를 닮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피력한 바 있다.⁴⁰ 사도의 표상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 길의 장본인이 된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들의 ‘사고’와 ‘열렬함’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다.

2. 확신에 따른 동기부여(Motivation)를 통해

이그나티우스는 성도들에게 성숙한 신앙의 동기부여를 통해 이단들로

³⁸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666-667.

³⁹ Ignatius, “To the Romans,” 6:1

⁴⁰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 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 (서울: SFC, 2016), 343, 346-347, 355-357; “순교는 개인적으로 행해지기도 했지만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 이럴 경우에도 순교 예정자는 특별한 관심과 존경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2세기 중엽의 이그나티우스의 순교였다.”

인한 교리적 갈등과 교회를 향한 로마의 박해를 이겨내도록 한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도록 다음과 같이 권면한다. “여러분이 연합하고 순복하며 감독과 장로회에 복종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성인이 될 것입니다.”⁴¹ 특히 성도가 성숙한 신앙의 위치에 서려면 자신의 위치와 현주소에 대해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마그네시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 제4장에서 이런 답을 준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⁴² 존재의 확신은 다음 단계의 비전을 만들어간다.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어떤 위치에 서야 하는지, 그 사고와 신앙에 대해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한다. 이때 인간 의지의 동기는 하나님의 섭리적 활동과 분리되지 않는다.⁴³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는 『자유지론』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 작동되어야 할 의지라고 말하고 있다.⁴⁴ 이런 인간의 의지에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확신을 고취 시키고 있는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자발적인 의식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고난에 따른 역경을 오히려 강하게 일어서게 하는 의지에 따른 동기부여의 매개체가 되게 한다. 자신이 고난의 역경을 이길 수 있었고, 순교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기보다 장차 이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다.

⁴¹ Ignatius, “To the Ephesians,” 2:2, 88.

⁴² Ignatius, “To the Magnesians,” 4:1, 95.

⁴³ Joel R. Beeke & Mark Jones, *A Puritan Theology Doctrine for Life*, 김귀탁 역,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201.

⁴⁴ Aurelius Augustinus, *De libero arbitrio*, 성명 역, 『자유지론』 (왜관: 분도출판사, 1998), 151-153.

그는 「에베소 인들에게」 제20장 1절,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인사말과 본문의 제8장 2절과 제9장 2절, 「서머나 인들에게」 제1장 2절과 제3장 1-2절, 제5장 3절과 제7장 2절, 제12장 2절에서 그리고 「폴리갑에게」 보낸 서신의 제7장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인 ‘부활’을 논한다.⁴⁵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의 특징은 사도들의 표상에 따른 것과 함께 자신을 통한 경험과 사실을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 제시가 아니라 사실에 따른 가르침의 접근방식이다. 이런 그의 멘토링은 상대로 하여금 더욱 확신과 용기를 가지도록 주어진 상황 앞에 당당히 서도록 만들어간다. 이와 같이 사실적 증거는 능동적 사고 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열렬한 행동을 이끌어내게 된다. 특히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이그나티우스로부터 받은 개인 서신(「폴리갑에게」)과 함께 이그나티우스가 ‘부활’의 확신에 대해 가장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서머나 인들에게」라는 서신을 접하게 된다. 이그나티우스의 확신에 따른 멘토링은 폴리갑에게 영향을 끼친다. 이런 모습은 폴리갑이 빌립보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나타난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받은 이그나티우스와 조시무스와 루푸스뿐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들, 그리고 바울과 나머지 사도들에게서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본 것과 같은 최대한의 끈기 있는 인내를 발휘하기를 권고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헛되이 달음질하지 아니하고” 신앙과 의로움 가운데 달린 것이요, 한때 그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들이 합당하게 차지할만한 처소에 있음을 확신하십시오.(*Phil*, 9:1-2)⁴⁶

⁴⁵ Ignatius, “To the Ephesians,” 20:1, 93; “To the Philadelphians,” 8:2; 9:2, 107, 110-111; “To the Smyrnaeans,” 1:2; 3:1-2; 5:3; 7:2; 12:2, 113-114, 116; “To Polycarp,” 7:1, 120.

⁴⁶ Polycarp, “The Letter of Saint Polycarp, Bishop of Smyrna, to the Philippian,” in *Early*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의 교회론의 제시는 교회의 존재와 필요성에 대한 확신과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일치와 연합을 이끌어내는 멘토링의 역할을 한다.⁴⁷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 분파주의를 이겨나가게 한다. 이와 같이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라는 가치의 확신을 심어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한 열렬한 신앙으로 그 모습을 승화시켜 나가는 촉매로서 역할을 감당한다.

3. 격려와 독려에 따른 동기부여(Motivation)를 통해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는 상대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열렬함과 적극성을 이끌어내는 특별한 리더십의 멘토링이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것들 가운데 하나가 격려와 독려를 통한 동기유발이다. 그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한다.⁴⁸ 여기에는 인내가 함께 요구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것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상대로 하여금 보고 배우게 할 것이며, 완악한 그들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며 동기를 부여한다.

존 오웬(John Owen, 1616-1683)에 의하면 장로와 목사에게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일에 온갖 의무가 함께 부과되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9:1-2, 135.

⁴⁷ Ignatius, “To the Ephesians,” 5:1-2, 89.

⁴⁸ Ignatius, “To the Ephesians,” 10:1, 91.

어있다.⁴⁹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감독과 장로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사역과 사명을 그리스도인의 인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이루어가도록 멘토링한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인내가 종말을 이겨내게 하고, 대적을 이겨내는 중요한 도구가 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⁵⁰ 사도 바울을 닮은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에는 ‘하나님에 의해 영감받은 자’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사말의 연결을 통해 고난과 고통 그리고 교리적 갈등 속에 놓여진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고 독려한다.⁵¹ 이런 과정을 통해 이그나티우스는 성도들에게 능동적 사고와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이끌어낸다.

(인사말)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영감받은 자” 이그나티우스가 메안테르 강변에 있는 마그네시아에 있는 교회에 행복을 빕니다.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그분과 연합함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을 받는 교회에 문안합니다. ... (본문)나는 그들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을 영과 연합시키셨다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들도 그들의 신앙을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과 아버지의 연합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Mag, 1:2)⁵²

이그나티우스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의 감독을 따르도록 독려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하듯 그들을 존중해야 하며,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위해 우리 또한 꾸밈없이 감독에게

⁴⁹ Beeke & Jones, *A Puritan Theology Doctrine for Life*, 742.

⁵⁰ Ignatius, “To the Ephesians,” 11:1-2, 91.

⁵¹ Ignatius, “To the Ephesians,” 87; “To the Magnesians,” 94; “To the Trallians,” 98; “To the Romans,” 102-103; “To the Philadelphians,” 107-108; “To the Smyrnaeans,” 112; “To Polycarp,” 117-118.

⁵² Ignatius, “To the Magnesians,” 1:2, 94.

순종해야 할 것”⁵³을 권면한다. 특히 사람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자세를 길러내도록 독려하는 그의 모습은 자신의 순교의 길과도 연관이 있다. 이것은 자신이 가르치고자 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했다.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격려와 독려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생각하는 사고와 적극적인 신앙의 행동을 유발시킨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 ‘그리스도에 의해 해방되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다시 살아가는 것’과 ‘자유롭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이를 통해 능동적 사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열렬한 의지적 발동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부여한다.⁵⁴ 뿐만 아니라 독려와 격려를 곁들인 그의 멘토링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함과 동시에 상대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IV.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를 세워가는 목자적 멘토링

1. 십자가의 참된 지식으로 자아상(自我像)을 회복

이그나티우스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세상 군주의 가르침에 생포된 자가 되어 자신의 삶을 강탈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이도록”⁵⁵ 한다. 영적으로 무너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 ‘자아상과 관련된 자신의 ‘의식’을 회복 받도록 한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원과 관련된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길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⁵³ Ignatius, “To the Magnesians,” 3:1-2, 95.

⁵⁴ Ignatius, “To the Romans,” 4:3, 104.

⁵⁵ Ignatius, “To the Ephesians,” 17:1, 92.

알게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이것을 다윗의 언약을 통해 가르치고, 부활을 통해 역설한다. “마리아에 의한 성육신과 부활을 무시하는 어떤 이야기에든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⁵⁶

S. F. 스트로슨(Peter Frederick Strawson, 1919-2006)과 같은 철학자는 ‘자아’를 ‘지각’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⁵⁷ 반면 앤서니 A. 후크마(Anthony A. Hoekema, 1913-1988)에 의하면 ‘자아’는 존재와 역할에 있어서 ‘인격’과 관련된다. 따라서 ‘자아상’의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칭의와 성화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⁵⁸ 성도들을 향한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참된 지식’의 회복을 이끌어내며, 이를 통해 성도들의 ‘자아상’을 건강하게 만들어간다. 그의 ‘자아상’의 회복은 부패하고, 무력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창조 회복을 이끌어가는 칭의와 성화에 따른 ‘새 창조’를 돌아보게 한다.⁵⁹ 이것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을 수 없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십자가와 관련하여 마이클 고먼(Michael Gorman, 1955-현재)은 자신의 저서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의 능력을 피력한다.⁶⁰ 그는 이 자리에서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약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다는 것을 밝힌다. 십자가의 ‘참된 지식’을 통해 ‘자아상’이 회복된 바울에게 나타났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유대교 전통과 다양한 철학적 관점에서 살아왔던

⁵⁶ Ignatius, “To the Trallians,” 9:1-2, 100.

⁵⁷ Anthony C. Thiselton, *The Hermeneutics of Doctrine*, 김귀탁 역, 『기독교 교리와 해석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430.

⁵⁸ Anthony A. Hoekem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106-111.

⁵⁹ Leonhard Goppelt,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최종태 역, 『모형론: 신약의 구약해석』 (서울: 새순출판사, 1993), 212-220.

⁶⁰ Michael Gorman, *Cruciformity: Paul's Narrative Spirituality of the Cross*, 박규태 역,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429.

모습에서 진정으로 인류를 바라보는 가치관의 전환이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사도의 길을 걷게 된다.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를 세우기 위한 이그나티우스의 목자적 멘토링에 따른 처방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성부께서 성도들을 위해 심은 것과 얻도록 한 것이 무엇인지 ‘참 지식’의 가르침을 준다.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은 십자가의 가지들이며”, 얻도록 한 것은 “그 십자가의 가지들을 통해 죽지 않는 열매를 맺는 것”이었다.⁶¹ 목자적 멘토링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들을 인도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 잘 보살피는 목양에까지 이른다. 백스터는 거짓된 십자가를 지는 목자들을 가리켜 겉으로는 양 떼를 치지만 속으로는 그 양 떼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매우 싫어하고 있다고 말한다.⁶² 목자로서 양들의 ‘자아상’을 바르게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왜냐하면 무엇으로 이들의 ‘자아상’을 일깨우느냐에 따라 이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깨달은 ‘자아상’은 십자가를 통해 저주의 형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부터 해방을 보며, 자유한 자가 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알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사용된다. 그중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알아가는 특별한 도구다.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은 ‘그리스도론’이 전체 서신의 특징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십자가’는 그의 신학적 요소 및 가르침에 이르는데 있어서 중심이 된다.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

⁶¹ Ignatius, “To the Trallians,” 11:2, 100-101.

⁶² Baxter, *A Christian Directory* 4, 136.

따르면 ‘십자가’는 한 마디로 ‘구원과 영생’이었다. 여기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었기에 그에게 있어서 순교는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찾는 감격의 길이 될 수 있었다.⁶³ ‘십자가’는 죽음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과 ‘새 생명’을 증거하고 있다. 이그나티우스는 ‘십자가’의 ‘참된 지식’으로 이런 참된 가치관의 ‘자아상’을 일깨운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십자가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멘토링한다.

2. 바른 교리로 건강한 영적 길을 제시

이그나티우스가 속사도 교부로 활동했던 당시에는 플라톤적 사상이 가미된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교회와 성도는 율법적 사고 속에 교리적 충돌을 일으켰던 에비온주의외⁶⁴ “몸이 영혼의 감옥”⁶⁵이라고 가르치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의 구원교리에 악영향을 받으며 갈등의 구조를 형성한다.⁶⁶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 가운데 가장 긴 21장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에베소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제13장에는 짧은 본문을 통해 여기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는 가현설을 보급하고 있는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적 반박을 ‘성찬’을 통해 만장일치 된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멘토링한다. 여기에 대한 이그나티우스의 어조는 매우 강하고 단호했다.

⁶³ Ignatius, “To the Ephesians,” 18:1, 92.

⁶⁴ Ernst Dassmann, *kirchengeschichte I*, 하성수 역, 『교회사 I』 (왜관: 분도출판사, 2007), 46; Jaroslav Pelikan,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1), 13-14; Ralph Del Colle, *Christ and the Spirit: Spirit-Christology in Trinitarian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158-159.

⁶⁵ Platon, *Phaidon*, 전현상 역, 『파이돈』 (서울: 이제이북스, 2017), 82e, 104.

⁶⁶ Theo Kobusch, *Christliche Philosophie: Entdeckung der Subjektivität*, 김형수 역, 『그리스도교 철학: 주체성의 발견』 (서울: 가톨릭출판사, 2020), 19-22; Kelly, *Early Christian Doctrines*, 15-17; Dassmann, *kirchengeschichte I*, 146.

하나님의 성찬을 거행하고 그분을 찬양하도록 더 자주 함께 모이기를 애쓰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빈번히 만날 때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그의 파괴성은 여러분의 만장일치된 믿음으로 전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분쟁을 없애는 평화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Ep, 13:1-2)⁶⁷

마그네시아와 트랄레스 교인들을 향한 이그나티우스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른 이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⁶⁸ 그는 이단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다른 음식’과 ‘맹독’으로 비유한다.⁶⁹ 백스터는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무지에 이르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는 잘못된 확신은 스스로가 속는 이유가 될 뿐”⁷⁰이라며 자신을 바른 교리로 세워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논한다. 이그나티우스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따른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단들의 교리적 갈등에 대해 망설임 없는 교리적 자세를 취한다. 자칫 또 다른 구덩이에 빠질 수 있는 교리적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릇된 교리 앞에 선택적 요소를 제시하지 않는다. 권면을 넘어선 강력한 조치의 결단을 보인다.⁷¹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에 나타나는 멘토링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 번째는 이해를 이끌어내는 멘토링이다. 두 번째는 강력함을 내세운 멘토링이다. 참된 가치관을 일깨우고, 사고와 열렬함을 만들어갈 때 그의 멘토링은 상대의 이해를 이끌어낸다. 그러나 교리와

⁶⁷ Ignatius, “To the Ephesians,” 13:1-2, 91.

⁶⁸ Ignatius, “To the Magnesians,” 10:1, 96.

⁶⁹ Ignatius, “To the Trallians,” 6:1-2, 100.

⁷⁰ Baxter, *A Christian Directory* 1, 218-222.

⁷¹ Ignatius, “To the Ephesians,” 18:2, 92-93.

같은 근본을 바르게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그의 멘토링은 강력함이었다. 「빌라델피아 인들에게」 보낸 서신은 거짓된 교리를 ‘나쁜 목초지’에 비유하면서 반드시 피할 것과 멀리할 것을 경고한다.⁷²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도 증거되고 있는 것처럼 마귀는 한순간도 쉬을 주지 않고 자신이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고 있다. 바른 교리를 세우기 위한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마귀와의 영적 전투의 현장에(핍박과 환경, 교리 등으로 인한 갈등)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너지지 않는 담을 제공하는 멘토링이었으며, 건강한 길을 제시하는 멘토링이었다.

3. 칭찬을 통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건강한 목회적 멘토링

순교 신학을 이끌어갔던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칭찬’을 통해 자긍심을 가지게 만드는 지도 방식이다. 순교 현장을 향하던 도중에도 그의 관심은 오직 ‘교회’와 ‘성도’였다.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목양은 주님의 가슴을 가진 목회였다. ‘다른 복음’을 향해서는 칼 같은 진리로 대응하며, 마치 전사와 같은 모습을 취한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는 인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강조한다.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고난과 갈등에 놓여진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품는다. 이때 영·육이 지쳐 연약함에 놓여 있는 성도들을 일으킬 때, 그리스도의 진리에 따른 양식과 함께 칭찬으로 이들의 자긍심을 회복시킨다.

나는 여러분이 책망할 것이 없고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그는(폴리비우스) 서머나에서 나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⁷²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2:1-3:3; 6:1-7:3, 108-110.

사람이 된 것에 대해 나를 진심으로 축하하였으며, 그 안에서 여러분 전체의 회중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를 통해 나에게 전달한 여러분의 경건한 선의를 받아들였고, 내가 들은 바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감사드렸습니다.(*Tral*, 1:1-2)⁷³

순교 당하기 위해 로마 호위병들에게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 “열 마리의 표범들에 의해 시슬에 매여 끌려가고 있다”는 이그나티우스의 표현 속에는 잔인함과 고통이 함께 기다려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⁷⁴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를 돌아보면서 위로와 격려가 섞인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인사말에 담긴 그의 목회적 돌봄은 칭찬을 통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주님의 가슴을 읽어보게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명성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축하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칭찬받고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흠이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법에 충실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날인되었으며, 사랑 안에서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Rom*, *Test*)⁷⁵

칭찬을 통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특정한 한 교회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비록 어떤 일정한 교회의 이름이 지목되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교회만의 내용이 아니었다. H. R. 드롭너(H.R. Drobner, 1955-현재)에 의하면 당시 서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공개적인 서신은 모두가 함께 회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⁷⁶

⁷³ Ignatius, “To the Trallians,” 1:1-2, 98.

⁷⁴ Ignatius, “To the Romans,” 5:1, 104.

⁷⁵ Ignatius, “To the Romans,” 103.

⁷⁶ H.R. Drobner, *The Fathers of The Churc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하성수 역, 『교부학』 (왜관: 분도출판사, 2015), 116.

이런 사실은 폴리갑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에도 나타난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요청한 대로 이그나티우스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 서신에 이것들을 동봉합니다.”⁷⁷ 따라서 칭찬을 통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그 교회를 통해 다른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라는 격려가 내포된 멘토링이었다.

「서머나 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을 통해 칭찬과 함께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여러분은 믿음과 사랑이 넘치고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굉장한 자랑거리이며, 참된 성인들입니다.”⁷⁸ 서신의 내용은 고난 가운데 놓여져 영·육간의 갈등 속에 사로잡힌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칭찬은 신앙으로 인한 고난에 따른 두려움과 갈등을 자긍심으로 바꾸며, 영적 건강을 회복시킨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면한 문제 앞에 담대하게 서도록 한다. 또한 이그나티우스는 서신이 가지는 회람의 특징적인 성격을 빌려, 한 교회의 칭찬 사례를 통해 온 교회가 이런 모델을 본받을 것을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성도를 세우는 목회적 멘토링을 사용하고 있었다.

⁷⁷ Polycarp, “The Letter of Saint Polycarp, Bishop of Smyrna, to the Philippians,” 137.

⁷⁸ Ignatius, “To the Smyrnaeans,” 112.

V. 이그나티우스 멘토링이 만들어내는 효과

1. 갈등을 이겨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그려내며 일치와 연합을 이끌어낸다

이그나티우스는 분파주의를 이끌고,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가리켜 ‘가면을 쓴 이리’, ‘나쁜 목초지’라고 표현한다. 반면 회개하고, 교회의 연합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 칭한다. 그는 신앙의 중심을 그려내며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살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성찬의 준수를 통해서도 이단과 구별되는 교리의 일치를, 교회에서 세워진 ‘한 명의 감독’으로 인한 성찬의 집행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을 이루게 한다.⁷⁹ 팀 켈러(Timothy Keller, 1950-현재)에 의하면 반목과 갈등의 문제는 필시 신앙과 연결된다. ‘거짓 신’의 문제로 인한 내적 갈등은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외적 갈등으로 그 모습이 발전한다.⁸⁰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형틀 안에서 하나의 중심을 그려내고 성도와 교회를 일치와 연합으로 이끌어내는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성소에 놓여진 두 가지 성전기구를 연상하게 한다. 하나는 ‘등잔대’다. (참고, 출 25:31-35) ‘순금 덩이’ 하나로 등잔 일곱이 떨어지지 않는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룬다. 또 다른 하나는 ‘떡상(진설병상)’이다. (참고, 출 25:23-30) ‘떡상’에는 ‘떡’이 있다.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진설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떡상’의 사면에 ‘떡’이 보호의 역할을 한다. 단순하게 보이는 ‘떡’이지만 ‘상’과 연결되어 연합을 이루어 ‘진설병’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움의 역할을 한다.

⁷⁹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2:1; 3:1-2; 4:1, 108-109.

⁸⁰ Timothy Keller, *Counterfeit Gods*, 이미정 역, 『거짓 신들의 세상』 (서울: 도서출판 베가북스, 2012), 180-181.

‘순금 덩이’와 같이 하나의 줄기를 이루는 일치와 연합의 신앙이 있는가 하면, ‘떡상’과 ‘떡상의 떡’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성격을 가졌지만 서로가 연합을 이루고 일치를 이루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겪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⁸¹라는 사실을 밝힌다. 이런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어야만 그분의 수난을 함께 나누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된다.⁸² 토마스 보스턴(Thomas Boston, 1676-1732)은 ‘인간의 본성’을 다루면서 “인간의 갈등적 구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부패함을 숨기기 위함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는 측면에서의 발단이다”⁸³고 말한다.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와 연합에 대해 단순히 그분께 속한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한다. 갈등의 구조를 신앙 중심으로 이길 능력이 함께 주어진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폴리카르는 이와 같은 이그나티우스의 서신이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지 여기에 대해 직접 증언하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요청한 대로 이그나티우스가 우리에게 보낸 편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른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 서신에 이것들을 동봉합니다. 여러분은 그 서신들로부터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서신들은 신앙과 인내, 그리고 주님과 관련된 모든 교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⁸⁴

⁸¹ Ignatius, “To the Smyrnaeans,” 2:1, 113.

⁸² Ignatius, “To the Smyrnaeans,” 4:2, 113-114.

⁸³ Thomas Boston, *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 스테반 황 역, 『인간 본성의 4중 상태』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28-29.

⁸⁴ Polycarp, “The Letter of Saint Polycarp, Bishop of Smyrna, to the Philippians,” 137.

폴리갑의 증언에서도 밝혀졌듯이 그리스도를 신앙의 중심에 두도록 하는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시냇가의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만들어간다. 이런 그의 멘토링은 성전의 ‘등잔대’처럼 교회를 그리스도로 함께 묶어가는 일치와 연합을 이끌어내는 효력을 발한다. 그리고 성전의 ‘떡상’처럼 ‘상’과 ‘떡’의 역할을 통해 서로를 연결시켜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상’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진설병’이 되게 한다.

2.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한다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이 가지는 효과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이를 통해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한다.⁸⁵ 「서머나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보편교회(καθολικὴ ἐκκλησία)’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하며, 공동체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 머물도록 멘토링한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보편교회’가 있다.”⁸⁶ ‘보편’을 통해 통일된 하나의 획일점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신앙과 삶이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작용이 있다.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보편교회’에서 멈추지 않는다. ‘한마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한다. ‘한마음’은 감정의 요소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일치된 교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

⁸⁵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11:2, 111.

⁸⁶ Ignatius, “To the Smyrnaeans,” 8:2, 115.

그리고 사도의 표상이 만들어내는 결론이다.⁸⁷ 파벌을 짓는 것은 ‘다른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 “분파와 나쁜 감정이 있는 곳은 하나님에게 실 자리가 아니다.”⁸⁸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이 이끌어내는 ‘한마음’은 파벌이나 분파가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기쁨을 알게 한다.

그러므로 이 세상 군주의 사악한 속임수와 올무를 피하십시오. 그의 제인들이 당신을 지지케 하고 당신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한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 함께 모이십시오.(*Phil*, 6:2)⁸⁹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서로를 응원하는 ‘한마음’을 가지게 한다. 십자가의 참된 가치관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을 깨달았을 때, 로마 교인들을 비롯한 성도들은 제자의 열정에 ‘한마음’이 된다. 리차드슨은 이그나티우스가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편집하면서 “누구도 이 서신이 가진 강렬한 진심이나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제자의 용감한 열정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⁹⁰라고 피력한 바 있다. 서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공통점이 있어야 가능하다. ‘보편교회’와 ‘한마음’을 이끌어낼 때 그의 멘토링은 사도들의 표상을 넘어 그리스도를 비취봄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⁸⁷ Isaac Ambrose, *Looking unto Jesus* 1, 송용자 역, 『예수를 바라보라 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67-73.

⁸⁸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8:2, 110.

⁸⁹ Ignatius, “To the Philadelphians,” 6:2, 109.

⁹⁰ Richardson, Ed., *Early Christian Fathers*, 102.

3. 갈등과 위기의 구조 속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는 갈등의 구조를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하고 있다. 첫째는 이단과 관련된 문제로써 교리로부터 그 문제는 불거진다. 두 번째는 로마 정부로부터 가해져 오는 핍박으로 말미암는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관련된 갈등이다.⁹¹ 갈등에 따른 구조적 분석이 분명했던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짧고도 분명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일치’와 ‘연합’ 그리고 ‘보편’과 ‘한마음’을 가지도록 이끌어갈 때, 그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찾았고, 제시한다.⁹² 이런 모습은 ‘사도의 표상’을 제시할 때도, 십자가를 넘어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그의 목자적 멘토링에도 동일하게 작동하였다.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확립점을 통해 간략하면서도 강렬함의 메시지를 발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 그의 멘토링은 갈등을 넘어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한다. 「트랄레스 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서문에서 “그리스도의 수난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다시 살아날 것”⁹³이라는 소망을 되새긴다.

‘십자가’의 일반적 형틀이 저주와 죽음의 고통을 동반한 무너짐을 제시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갈등을 이겨내는 근본이 되고, 동력이 된다.⁹⁴ 따라서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에는 십자가를 지신 제사장 직분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그리스도가 부각된다.⁹⁵ 「로마 인들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밑이니 야수들의

⁹¹ 조윤호,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218.

⁹² 조윤호,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0 (2021): 148-152.

⁹³ Ignatius, “To the Trallians,” 98.

⁹⁴ Martin Luther, *Lectures on Galatians*, 김선희 역, 『갈라디아서 강해(상)』 (용인: 루터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371-398, 412-416.

⁹⁵ 조윤호,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227, 230-232.

이빨에 갈려져 그리스도를 위한 순수한 떡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⁹⁶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가 자신 그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 자신에게 효력으로 작동되며, 그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 죄악된 소망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대항해야 할 이유를 가진다.⁹⁷ 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진리는 영생의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 교양』에서 남긴 말처럼 “우리의 모든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⁹⁸ 성부의 일하심은 성자를 통해 이루심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빌립을 향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요 14:9)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제1의 원리가 작용된다.⁹⁹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은 갈등과 당하는 위기 앞에서 오히려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죽음이라는 갈등적 구조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참된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효력을 낳고 있다.

VI. 나가는 글

이그나티우스는 순교 당하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는 도중에 「에베소인들에게」에서부터 「폴리갑에게」 이르기까지 일곱 서신을 기록한다. 서신의 내용은 간결하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담는다. 고난과 핍박

⁹⁶ Ignatius, “To the Romans,” 4:1, 104.

⁹⁷ Baxter, *A Christian Directory* 2, 186-189.

⁹⁸ Aurelius Augustinus, (*De doctrina christiana*, 성염 역, 『그리스도교 교양』 (왜관: 분도출판사, 2011), 121-123.

⁹⁹ Sinclair Buchanan Ferguson, *The Whole Christ*, 정성목 역, 『온전한 그리스도』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78-82: 그리스도는 구원의 다양 측면에 있어서 제1원인이 된다.

그리고 이단으로 말미암은 위기적 갈등 구조 속에서 그의 서신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 구조를 형성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멘토링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회복시키며 갈등의 구조로부터 벗어나고, 이겨나가게 한다. 두 번째는 사고의 구조적 전환을 통해 신앙의 열렬함을 이끌어낸다. 세 번째는 목자적 멘토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간다. 이런 멘토링이 효력을 발휘하는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 특히 위기와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켜가는 그의 멘토링은 악한 것을 통해서도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대한 확신을 보게 한다.

이그나티우스 멘토링의 뛰어난 점은 위기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그 사건 안에 함몰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 사건을 신앙관으로 바라보게 하고, 신앙으로 이끌어내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신이 그 신앙의 정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멘토링은 주장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습을 가미하게 된다. 특히 갈등의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희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의 멘토링은 용기와 격려를 넘어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리로 성도들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했다. 이런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은 현재 당면해 있는 위기의 코로나 시대 위에 한편의 답을 준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을 일깨우며 신앙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 위기의 코로나 앞에 나타난 가장 큰 당면의 문제는 신앙의 무너짐이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가운데 한편의 시적으로 끝나버리는 인터넷을 통한 예배가 위기의 코로나 이후를 더욱 걱정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을 양육해내는 그의 멘토링은 혼란 가운데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신앙의 정체성을 동여매게 만든다.

두 번째는 사고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다.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에서 떠나지 않는 강조점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론’의 바른 교리적 가르침이다. 그리고 ‘동기부여’다. 바른 교리적 가르침은 영적으로 침체되어있는 성도들을 일깨우는 사역이 된다. 시스템과 제도적 강화 또는 이해와 설득이 아니라 바른 교리적 가르침을 통해 영적으로 성도들을 일깨우는 그의 멘토링은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해결의 열쇠로 작용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동기부여’에 대한 그의 멘토링은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취한다.

세 번째는 교회간 일치와 연합을 이루도록 한다. 이그나티우스는 그 당시 서신이 가지는 회람의 특징을 살린다. 한 교회의 칭찬을 통해 시기와 질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로 하여금 본이 되고, 격려되도록 멘토링 한다. 교회 간의 경쟁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지교회가 지체를 이루는 ‘한 몸’과 같은 개념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게 한다. 위기의 코로나는 각개 전투 방식이 아니라 연합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이 시대를 극복해나 가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연합과 연대를 취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과 나눔의 사역(공동사업)을 통해 일치와 연합을 이뤄가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그나티우스 멘토링의 뛰어난 점은 위기로 말미암은 갈등의 문제를 신앙으로 승화시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의 멘토링은 시대적 접근법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멘토링은 위기의 코로나 앞에 놓여 있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단과 코로나라는 또 다른 갈등에 사로잡혀 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그나티우스의 멘토링을 다시 한번 더 조명해볼 필요를 느끼게 된다.

〈Abstract〉

Mentoring Study of Ignatius that Sublimated Conflicts Caused by Crisis into Faith

Jo, YounHo

(Senior Pastor, Gerizim Church / Systematic Theology)

While the central role of the apostles in the 1st century was to build the church, the church fathers in the 2nd century were centered in the ministry of caring for the church and believers. At that time, when the church fathers were ministering in the 2nd century, the church and the believers were in a structure of heresy and conflict with Rome. In this regard, the seven epistles of Ignatius teach the church and the believers how to overcome the crisis they are facing. For overcoming conflict, he suggests two ways. It presents a clear doctrinal position on the issue of conflict caused by heresy. And the problem of conflict caused by suffering gives courage and encouragement to overcome the environment with faith. Here we meet Ignatius' outstanding mentoring.

Central to the seven epistles written by Ignatius is Christology. As such, his mentoring is also central to Christology. Christology was his faith and theology taught by the apostles, and it was his mentoring to lead the church and the believers. Ignatius uses a fact-based approach rather than theory and thought. The way of the cross he suggests was mentoring to build up healthy churches

and members in crisis. Ignatius' mentoring sublimates the hardships and conflicts caused by the immediate problem into faith. We are living in a time of crisis. Faith is threatened by secularization and Corona. There are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imes. However, Ignatius' mentoring is giving an important message to the church and believers of this age who are facing the crisis of secularization and Corona.

Key Words: Conflict, Christ, Mentoring, Cross, Faith, Ignatius

〈참고문헌〉

- 이상규. 『초기 기독교와 로마 사회: 로마 제국 하에서의 기독교』. 서울: SFC, 2016.
- 조윤호. “갈등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이그나티우스의 신학과 사상연구: 이그나티우스의 일곱 서신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68 (2020): 218-268.
- _____. “이그나티우스의 성찬신학에 대한 연구: 영지주의자들과의 교리적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 70 (2021): 124-167.
- Ambrose, Isaac. *Looking unto Jesus* 1. 송용자 역. 『예수를 바라보라 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Augustinus, Aurelius. *De libero arbitrio*. 성명 역. 『자유지의론』. 왜관: 분도출판사, 1998.
- _____. *(De)doctrina christiana*. 성엽 역. 『그리스도교 교양』. 왜관: 분도출판사, 2011.
- Bettenson, Henry. Ed. *The Early Christian Fat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 Bavinck, Herman. *Reformed Dogmatics* 1.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3.
- _____. *Christelijke wereldbeschouwing*. 김경필 역. 『기독교 세계관』. 경기도: 다함 출판사, 2020.
- Baxter, Richard. *A Christian Directory* 1. 박홍규 역. 『기독교 생활 지침 1』.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 _____. *A Christian Directory* 2. 박홍규 역. 『기독교 생활 지침 2』.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8.
- _____. *A Christian Directory* 4. 박홍규 역. 『기독교 생활 지침 4』. 서울: 부흥과개혁사, 2020.
- Brooks, Thomas. *The Mute Christian under the Smarting Rod, in The*

- Works of Thomas Brooks*. Ed. Alexander B. Grosart. Edinburgh: Banner of Truth Trust, 2001.
- Beeke, Joel R & Jones, Mark. *A Puritan Theology Doctrine for Life*. 김귀탁 역.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5.
- Boston, Thomas. *Human Nature in its Fourfold State*. 스테반 황 역. 『인간 본성의 4중 상태』.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6.
- Buchanan Sinclair. *Ferguson. The Whole Christ*. 정성묵 역. 『온전한 그리스도』.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2005.
- Charnock, Stephen. *Discourses upon on the Existence and Attributes of God*. London: Thomas Tegg, 1840.
- Colle, Ralph Del. *Christ and the Spirit: Spirit-Christology in Trinitarian Perspectiv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Dassmann, Ernst. *kirchengeschichte I*. 하성수 역. 『교회사 1』. 왜관: 분도출판사, 2007.
- Drobner, H.R. *The Fathers of The Church: A Comprehensive Introduction*. 하성수 역. 『교부학』. 왜관: 분도출판사, 2015.
- Goppelt, Leonhard. *The Typological Interpretation of the Old Testament in the New*. 최종태 역. 『모형론: 신약의 구약해석』. 서울: 새순출판사, 1993.
- Gorman, Michael. *Cruciformity: Paul's Narrative Spirituality of the Cross*. 박규태 역. 『삶으로 담아내는 십자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 Hamman, Adalbert. *How to Read the Church Fathers*. London: SCM Press LTD, 1993.
- Hoekema, Anthony A.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4.
- Ignatius. "To the Ephes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Magnes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 2006.
- _____. “To the Smyrnae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Philadelph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Polycarp.”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Rom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_____. “To the Trall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Kelly, J. N. D. *Early Christian Doctrines*.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8.
- Kobusch, Theo. *Christliche Philosophie: Entdeckung der Subjektivität*. 김형수 역. 『그리스도교 철학: 주체성의 발견』. 서울: 가톨릭출판사, 2020.
- Keller, Timothy. *Counterfeit Gods*. 이미정 역. 『거짓 신들의 세상』. 서울: 도서출판 베가북스, 2012.
- Luther, Martin. *Lectures on Galatians*. 김선희 역. 『갈라디아서 강해(상)』. 용인: 루터신학대학교 출판부, 2003.
- Polycarp. “The Letter of Saint Polycarp, Bishop of Smyrna, to the Philippians.” in *Early Christian Fathers*. Ed. Cyril. C. Richards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 Pelikan, Jaroslav. *The Emergence of the Catholic Tradition(100-600)*.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971.
- Platon. *Phaidon*. 전현상 역. 『파이돈』. 서울: 이제이북스, 2017.
- Richardson, Cyril C. Ed. “The Martyrdom of Saint Polycarp, Bishop

of Smyrna, as Told in the Letter of the Church of Smyrna to the Church of Philomelium.” in *Early Christian Fathers*. Louisville KY: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6.

Schaff, Philip.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22.

Thiselton, Anthony C. *The Hermeneutics of Doctrine*. 김귀탁 역. 『기독교 교리와 해석학』.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6.

Vanhoozer, Kevin J. *Hearers and Doers*. 박세혁 역. 『들음과 행함』. 서울: 북 있는 사람, 2020.